

'탄소·와인·아트'...투자역사 만드는 업계최대 외인부대

[한국증시 파워엔진]한국투신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10.12.09 11:27

2006년 7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서철수 팀장이 산업은행(현 KDB)를 나와 한국투신운용에 동지를 텃다. 직함은 실물자산운용본부장. 직원 수는 서철수 상무 1명.

4년 반 후인 2010년 12월. 실물자산운용본부는 '한국 최초'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업계 최대 규모의 '외인부대'로 성장했다. 구성원의 수는 베트남 현지 파견인력 1인을 포함해 23명.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이력도 다양하다.

SOC운용, 자원운용, 부동산운용의 3개팀으로 이뤄진 실물자산운용본부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식을 제외한 다양한 실물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주식을 제외한 모든 유한한 재화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석탄이건 석유건 중국에는 없어질 재화이므로 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3명의 구성원 모두 서 상무가 직접 시장에서 선발했다. 변호사 1명, 회계사 4명을 포함, 전공도 자원공학, 물리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등 공대에서부터 MBA, 경영학, 부동산학, 회계학, 금융공학까지 다양하다.

서 상무는 본부의 가장 큰 강점으로 이 같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분업과 화합'을 꼽는다. 담당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최상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현재 운용중인 펀드는 총 43개. 관리자산규모는 1조8000억 수준으로 자원 및 대체투자 운용부문에서는 업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부동산과 SOC분야에서도 업계 4~5위 수준의 운용능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투신 실물자산운용본부가 운용하는 펀드에는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특히 자원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설정된 펀드만 6개. 베트남유전개발펀드, 와인펀드, 탄소펀드, 오일에너지펀드, 탄소배출권 펀드 등이 한국투신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를 통해 한국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중 베트남유전개발, 탄소,탄소배출권 펀드 등 4개는 국책과제로 설계됐다.

10월말 현재 총 43개펀드 중 37개 펀드가 최대 56%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머지 6개 펀드의 손실폭도 대부분 1%미만이다.

대표적으로 2006년말 설정된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1호의 수익률은 약 56%. 한국투자사모오일에너지특별자산투자신탁1,2호의 경우 설립 1년6개월만에 각각 51.8%, 44.1%의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

2008년 2월 설정된 '와인펀드' 한국사모BordeauxFineWine특별자산투자신탁1호는 26%, '아트펀드'로 불리는 한국사모명품아트특별자산투자신탁1호도 2008년 7월 설정된 이후 2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탄소펀드' 한국투자사모탄소특별자산투자회사1호도 2008년 8월 설립 후 18.6%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서 상무는 다양한 투자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천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꼼꼼한 실사와 점검'을 꼽는다.

"본부장인 제가 투자하고 싶은 유망한 투자처가 있어도, 본부 내 회의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내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의 철저한 점검도 거쳐야하죠"

서 상무는 앞으로 대안투자로 불리는 실물자산투자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많은 전문인력들이 실무를 배우기 위해 실물자산운용본부로 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실물자산투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제도, 법규 등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 주식·채권보다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식대출 사상최저, 연 6.9%(모든등급) 금리 파격인하(선착순 마감) ☎ 1577-585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